DOI | https://doi.org/10.35865/YWH.2020.12.118.3

시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도전과 기회

그렉 A. 브래진스키[배투호]*
번역 : 조민지(曺民志)**

위기는 전 지구적 변화의 인큐베이터이자 가속장치가 되는 경향이 있다. 2020년 세계를 황폐화시킨 팬데믹도 예외는 아니다. 위기가 아직 완전히 끝장나지 않았고 아무도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보일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몇 가지 불길한 징조는 알 수 있다. 코로나19는 장기간 지속하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깊이 뿌리박힌 전제들을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박살 내면서, 해일처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휩쓸었다.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면 2021년에는 이 위기의 절정이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 후유증은 수년 동안 지속되며 아시아 전역의 정부에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한계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1월에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팬데믹 상황이나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행할 것 같기는 하지만, 미국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하면서

* 조지 워싱턴 대학교 역사·국제관계 교수
대표논저 : 2007 *Nation Building in South Korea: Koreans, Americans, and the Making of a Democrac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번역서 : 나종남 역, 2011,『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 경제 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미국』, 책과함께) : 2017 *Winning the Third World: Sino American Rivalry during the Cold War,*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리더십을 의심하도록 했고, 이 의구심이 쉽게 누그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한국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새로 대두하는 경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국제 정치의 흐름을 헤쳐나가며, 세계 전체에도 유익하고 자국의 이익에도 복무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경제적·문화적 역동성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이 직면해야 할 도전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제일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상황이다. 워싱턴의 정치 지도부에 일어난 최근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여기에서 파생된 결과가 미국식 세계화에 파문을 몰고 올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총생산(GDP)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공업, 숙박업, 요식업 및 수많은 기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여전히 수개월이 걸릴 것이다. 2020년 미국의 재정 적자는 3조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미 2019년에 기록했던 전대미문 총액의 3배 이상이다. 경제가 고전을 면치 못하며 예산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미국이 해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대한 욕구는 극히 제한될 것이다. 미국이 기업을 부양하고 실업자를 구제하는 데 세입의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군사 및 경제원조에 대한 지출은 더 철저하게 조사받을 것이다. 미국의 암울한 경제 전망 때문에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었던 삭감 기조를 전변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이 입은 피해는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인 것이기도 하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선망하고 존경하며 때로는 미워하는 나라였다. 반미주의조차도 미국의 세력과 지배에 대한 반감에서 종종 그 동력을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 어

느 나라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훨씬 더 많아지면서 미국은 갑자기 연민, 심지어 경멸의 대상까지 되었다. 다른 국가들이 팬데믹을 억제하는 데 성공을 거두는 와중에도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이에 무능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21세기의 변화하는 세계를 주도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수는 팬데믹 이전에도 감소하고 있었고,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추세가 영속화될 위험이 있다.

미국과의 동맹이 국가 안보정책의 초석인 한국에게, 이토록 갑작스레 미국의 전 지구적 입지가 약화되는 현상은 결코 달가운 국면이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향후 한국 내에서 앞으로의 정책 선택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이들 옵션 중 그 어느 것도 위험이 아주 없을 수는 없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안보공약(commitment)을 유지하도록 설득해볼 수 있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중국을 소외시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국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제약과 충돌할 수 있다. 미국이 자체 국방비 지출을 늘릴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기술 혁신이나 사회 정책에 대한 정부의 투자 역량이 줄어들 수 있다. 또는 한국 정부가 인도, 호주 및 일본과 같은 이른바 "쿼드(Quad, 4개국 안보협의체 : 역자)" 멤버들과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향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두 가지 이유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첫째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서 영토 혹은 역사 문제에 대해 계속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둘째로 한국은 많은 문제에서 쿼드의 다른 멤버들과 전략적 이해관계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세력과 영향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하나같이 중대한 결점을 가진 선택지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보다야 확실히 바이든 행정부 쪽이 수월할 것이다. 트럼프에 비하면 바이든은 미국의 동맹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두며, 분명 한국을 응징하기보다는 협력하려고 할 것이다. 바이든의 당선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동맹에 드는 비용에 한국 측 부담을 대폭 늘려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했던 상황 같은 것도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북한에 대해 좀 더 전통적으로 접근하며, 정상회담과 관계 개선보다는 제재와 봉쇄를 강조할 것이라고 널리 보도된 바 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동안 나온 일부 발언을 보면 바이든과 문재인 사이에 북한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일정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동시에, 우리는 바이든이 오바마 정부 시기에 있던 교착 상태로 상황을 되돌릴 것이라고 섣불리 추측해서도 안 된다. 오바마가 집권할 당시 한국 측 파트너들은 대북관계를 진지하게 밀고 나가는 데 거의 관심이 없던 보수 정권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북한 정권과의 생산적인 관계가 실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다고 새로운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에 남겨질 것이다.

바이든의 당선은 한국에게 대체로 희소식이지만, 21세기 국제 정치의 냉정한 현실이 이 희소식조차도 희석시킬 것이다. 새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한 미국 외교정책의 톤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미국 정부가 적수나 경쟁자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극적으로 변할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바이든이 그 정치적 수사에서는 트럼프보다 허풍이 덜하다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노선을 그대로 끌고 갈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약간 다른 이슈에도 초점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트럼프가 부과했던 대중 무역제재와 관세를 해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신장에 있는 중국의 강제수용소에 대해 비판하기를 꺼렸지만 바이든은 여기에 문제제기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고,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또 다른 마찰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계속되는 중·미간 경쟁 때문에 한국은 까다로운 위치에 놓일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전 지구적

연합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여기에 계속 한국의 협조를 구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맞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 정부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한국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조치는 중국의 자기주장이 강해지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더 불안정해지기만 할 것이다. 마오쩌둥식 혁명적 열정을 연상시키는 극단적 민족주의가 추동한 바, 시진핑 정부는 인접국에 무시당하고 있다는 인식에 극히 민감해졌고 이에 거리낌 없이 맞설 것이다. 최근 다수의 중국 외교관들이 소셜 미디어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에 응수할 때, "전랑(戰狼) 외교"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 본토와 매우 가까운 곳에서 자유 민주주의와 미국 영향력의 전초 기지로 있는 남한의 위상이 중국 정부에게는 여전히 아픈 곳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남한은 이러한 공격의 타겟이 되기가 쉽다. 한국 영토 내 사드(THAAD) 배치에 강력하게 항의한 것과 트럼프 행정부에 못마땅해 하는 한국인에게 구애하려고 노력한 것, 두 사례 모두에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충성도에 대해 중국이 극히 민감하게 굴고 있음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다. 지금까지 늑대 전사(戰狼)들은 대체로 물어뜯기보다 짖는 편이었고, 중국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정부 사이에서 정치 수사상의 충돌이 점점 커지는 것은 양국과의 관계 모두에 비중을 두는 한국 정부에게 여전히 곤란한 상황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정치적 수사의 논조를 점점 더 강경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평판을 높이려 노력해 왔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을, 백신 외교와 정보 캠페인을 통해 이미지를 만회하는 기회로 전환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서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부당하게 비난했던 서구 지도자들이 실패하는

동안 중국 공산당 관료들과 공중보건 종사자들이 영웅적으로 고군분투하여 이를 억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바이러스가 국경 너머 확산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중국에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서사는 자국 내 대중뿐 아니라 중국이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일부 외국 지도자들에게도 상당한 호소력을 가진다. 코로나19를 퇴치하는 데 원조를 제공하면서 이 서사를 확산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과의 양자 관계를 강화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전형이다. 미국을 직접 공격하거나 서로 치고받는 언쟁에 휘말리지는 않을 것이지만, 보다 미묘하게 미국에게 손해를 끼치며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한국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중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더 많은 국가에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여겨지게 된다면 한국은 미국이나 서구세계 바깥에서 몇 안되는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점점 더 고립될 수 있다.

그러나 아마도 중국이 한반도 내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방식은 북한과의 독특한 관계를 통해서일 것이다. 미국 내 전문가들 중 다수는, 중국과 북한이 실제로는 서로를 혐오하고 그 사이에서 오가는 선의의 표현도 일종의 가식일 뿐이라고 본다. 최근의 사건 전개는 이러한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서로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고 즐겨 말하는 이 두 동맹국이 더욱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2018년과 2019년 있었던 김정은과 시진핑의 고위급 정상회담을 차치하고서라도, 수없이 주고받는 우의의 제스처 속에서 양국 관계에는 훈풍이 불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중국과 북한은 다양한 영화, 미술 전시회 및 기타 활동을 통해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70주년을 기념한 바 있다. 김정은이 평안남도 회창군에 소재한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 능원을 방문한 사실이 중국 언론에서 비상한

관심을 받는 동안, 중국 측 다큐멘터리들은 중국 인민지원군과 북한 인민군이 미국에 맞서 싸우는 장면을 보여 주었다. 게다가 중국은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갈수록 점점 더 노골적으로 모른 척 해 주고 있다. 북·중 관계는 언제나 서구의 많은 관측통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친밀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양국은 점점 더 많은 계획과 목표를 공유하게 되었다.

중국이 북한을 자신들의 세력권 내로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데 성공하는 것은 남북관계에도 분명한 함의를 갖는다. 중국 정부는 북한 정부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김정은 정권이 남한 혹은 미국 정부와 정상회담을 재개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중국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임을 의미한다. 북한 정부가 남한과 미국의 평화 이니셔티브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동기는 경제원조와 제재 완화였지만, 중국의 무역과 투자가 증대한다면 이는 훨씬 중요도가 떨어지는 유인이 될 것이다. 더 노골적으로는, 지금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대치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미국에 갖는 적대감을 제어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사실 일부 중국 관리들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갖는 영향력에 전반적으로 저항을 일으키기 위해서, 북한 정부가 반항적이고 대립각을 세우게끔 미묘하게 부추길 여지조차 있다. 남한이 북한 정부와 의미 있는 관계를 추진하려면 중국을 소외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는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이 될 것이다. 북중 연대가 더 강해질 때, 김정은 정권이 중국의 분노를 감수하면서까지 남한을 상대할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한국은 코로나 시대는 물론 그 이후에도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많다. 한국 정부가 과학과 민주적인 문화를 포용하는 과정에서 얻은 소프트 파워와 선의를 동력으로 삼아 인접국들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국제 정치에서 더욱 중요하고 존경

받는 주자로 부상할 수 있다. 이런 전개는 한국에게 단순히 멋지거나 유익한 것 이상이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는 한국이 한발 더 나아가 아시아 지역과 국제 사회에서 더 넓은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의 어느 나라보다 자유 민주주의적 가치를 증진하고 인류가 처한 조건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커질 것이다.

작년에 미국과 다른 주요 강대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한국이 국제적인 위상을 크게 제고한 하나의 핵심적인 이유는 팬데믹을 억제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 몇 주 동안 한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사례가 서서히 증가한 것이 실망스럽긴 하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있어 여타 산업화된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인상적인 결과는 중국이나 기타 지역에서 도입한 가혹한 락다운 조치 없이도 가능했던 것이다. 이 성공으로 한국은 전염병 예방 및 통제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했으며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를 다루는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한국식 "모델"을 지목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한국은 다른 나라 정부가 전염병을 억제하려는 것을 지원하는 데에도 역할을 넓히기 시작했다. 중동 및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 조용히 원조를 제공하여 검사 상황을 개선하고 의료 인력을 교육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는 많은 정부와 국제기구들로 하여금 그들이 팬데믹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그리고 미래의 전염병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인프라가 얼마나 긴급한지를 절감하게 했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중대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재조정이 일어남에 따라, 한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접근 방식을 모방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미국이나 대다수 유럽 국가에서처럼 광범위한 락다운 조치와 정부 권한에 한계가 온 상황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는 것보다는, 집중적인 검사, 접촉자 추적

조사 및 데이터 마이닝과 같은 한국식 시스템에 수반되는 제한적인 감시가 궁극적으로는 자유권에 대한 침해가 적다는 것, 한국은 여타 민주주의 국가에 이를 설득해야 한다. 다른 국가들이 향후 한국식 모델을 따르기 위해 기술적으로 투자하는 데에 관심이 없더라도, 한국의 준비 태세, 신속하게 검사를 개시한 점 및 기타 중요한 조치에 대해 배울 점이 많을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관심과 존경을 자산으로 삼아 WHO나 전 세계 공중보건에 복무하는 여타 국제기구에서 보다 중심적인 위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팬데믹이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을 촉진하는 것이 점점 더 시급해질 것이다. 여기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가질 기회가 있다. 사실상 코로나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국가가 없을 지경이며, 대다수의 정치 지도자들은 코로나 이전 수준의 번영과 성장을 신속하게 원상회복하는 "V자형" 복구를 꾀하려 하고 있다. 중국, 한국, 베트남 등 몇몇 아시아 국가들은 팬데믹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상승 궤도에 올리기 위한 경쟁에서 유럽이나 미국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었던 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은 단연 두드러졌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원상 복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을 전 세계 경제의 롤모델로 탈바꿈시킬 만한 미래지향적 기획을 제시했다. 한국은 아시아의 어느 이웃 국가들보다도, 위기를 지속적이고 의미있는 변화의 기회로 삼아 왔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에 힘입어, 문재인 정부는 환경의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디지털 인프라 및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다. 일부 관료들은 한국판 뉴딜의 몇 가지 측면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 특히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들어갈 잠재적 비용 같은 것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이 그 야심만만한 어젠다의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만 달성하더라도, 그동안 주로 남들이 처음 개발한 혁신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던 한국으로서는 이를 통해 글로벌 혁신의 기준이 되는 국가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경제 회복을 추진해 나갈 때, 다른 국가들이 곧바로 그 발자취를 따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수출에 의존하는 것이 때로 골칫거리였지만, 한국의 많은 하이테크 제품은 팬데믹 기간 동안 높은 수요를 유지하여, 다른 부문에 의존성이 높은 경우보다 한국경제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한국과 같이 세계시장을 지향하는 경제체제가 계속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과 같은 새로운 무역 협정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보았다. 한국은 팬데믹 이전부터 베트남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매우 성공적으로 시행했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유사한 협정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바 있었다.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자유 무역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반면, 한국은 무역 장벽이 계속 무너지는 세계에서도 번영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국이 앞으로 몇 달 안에 경제적 역동성을 되찾을 수 있다면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G7 가입을 목표로 삼을 때 이를 주장하는 근거도 강력해질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의 지속적인 무역 불화는 한국이 경제 정책의 영역에서 직면하게 될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일본이 끈질기고도 악의적으로, 그들이 20세기 전반기에 자행한 끔찍한 잔혹 행위를 시인하지 못하는 것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동시에 일본과 한국은 이익과 가치 측면에서 많은 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협력하는 것, 그리고 무역상 유대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지금 이 분쟁에 관해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정부가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여타 한국 기업들이 이미 일본 측 공급에 대한 대안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보다 일본에 경제적으로 더 큰 타격을 줄 위협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분쟁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바이든 본인은 현재 진행 중인 역사적 문제에 대해 훨씬 더 깊이 인지하고 있다. 그는 2013년에 아베 신조에게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지 말라고 설득해보려 했으며, 아베가 방문을 추진한 후 미국 정부가 실망을 표하는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이 과거 몰이해한 일본의 행보에 대해 표명했던 반감이, 바이든 정부가 분쟁에 접근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려면, 이 분쟁에서 일본으로 하여금 계속 역사적 심판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은 단호하게 거부하되, 그들이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면 스가 정부와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가장 큰 기회는 한국 문화가 갖는 국제적으로 엄청난 호소력과 그에 따라 증가하는 소프트 파워에서 기인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영화, 드라마, 음악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아시아, 유럽, 미국에서 열렬한 팬 군단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K-Pop과 K-Drama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의 유형, 그 이상을 대변한다. 그들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시민적 참여를 독려하는 독특한 능력 때문에 중요한 민주화 세력이 되었다. 전 세계의 K-Pop 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떨쳤고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을 저지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다. K-Pop의 힘은 나라마다 다르게 드러나지만 하나의 상수는 이를 사실상 억누를 수 없다는 점이다.

냉전이 종식될 무렵 동유럽과 소련의 록 음악이 그랬던 것처럼, K-Pop이 언젠가는 중국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게 전혀 터무니없는 상상은 아니다. 2014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도 관심을 가져 정부 최고위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일부 중

국 공산당 관리들은 드라마의 인기를 중국 문화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았고, 당은 스트리밍 서비스와 텔레비전 네트워크에서 방영할 수 있는 외국 컨텐츠의 양에 새로 제한을 두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도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수요에 타격을 주지 못했다.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히트시킨 작품 중 최신작인 '사랑의 불시착' 역시 중국 본토에서 널리 시청되고 회자된 바 있다. 중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K-Pop 아티스트들의 인기를 억누르려 한 것도 마찬가지로 성공하지 못했다. 최근 BTS는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희생을 기리고 한미 우호의 역사에 찬사를 보내면서, 중국 국영 매체와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중국 내 팬덤은 이 분노를 격하게 비판했다. 중국 측 공식 언론이 BTS를 공격하기 위해 게시한 일부 기사를 조용히 삭제하면서, 관련 논란은 거의 제기되자마자 바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이것이 현재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중국 공산당이나 정부 측 입장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말하려던 것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은 동유럽의 공산 정권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민족주의를 활용하여 피통치자들의 지지를 유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당이 통제할 수 없는 K-Pop의 영향력에 대해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미국 내에서는 K-Pop에서 영감을 받은 젊은이들이 점점 더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지난 여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털사(Tulsa)에서 열린 트럼프 집회에서 실제 참석자들이 적었던 것은 다수의 K-Pop 팬들이 실제 사용할 의도도 없는 입장권을 일부러 동원하고 등록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아티스트 자신들이 영향력을 가졌다기보다 오히려 그 팬들이 더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운동에 관련된 수백만 명의 열성적인 K-Pop 팬들이 전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이 자국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소프트 파워를 유지하는데에 중요한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한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에 맞닥뜨리게 하고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몰아갈 수도 있지만, 국가가 번영하고 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 역시 가져올 것이다. 한국이 결코 미국이나 중국과 동등한 군사 강국이 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경제적·문화적 영향력과 같은 다른 형태의 힘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코로나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경제를 확실하게 원상 복구하며, 음악과 영화에서 인기가 급증하면서 얻는 명성을 통해, 한국은 번창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동시에 세계는 한국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절실히 필요로 할 것이다. 한국이 이러한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다면, 전염병과 그에 따른 경기 후퇴로부터 전 지구적인 원상회복이 신속하게 일어날 전망을 높이는 동시에 전 세계 민주주의의 대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지도자들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신중하고도 선견지명이 있는 정책을 채택한다면,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대세 국가가 될 것이라 장담할 수 있을 것이다.